

노 朝鮮佛敎中等教育에 있어 重大問題인 동시에 朝鮮佛敎 그것의 基礎를 確立시키는 데 重大役割이 되 는 것이다. 이하야 佛敎專門學校의 機能도 生命 化시킬 수 있는 것이니 次一佛敎에 對한 아무 基礎知 識이 없는 普通中等學校出身生徒가 佛敎專門에 들 어가 佛敎時間에 아무 興味를 갖지 못하고 따라 서 効果를 내지 못하니 이 무삼 自他의 損失이리 라 모음이 佛敎의 基礎知識을 弄하여 佛敎中等 學校의 敎科書를 編纂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 普通學科는 그것이 보다 生活上 必須 知識이 될 것인 것만큼 概括的이라도 全部에 亘하여 敎授의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四

나는 以上에서 若干 所感을 말하여 왔거니와 이 問題가 적지 않은 것인 만큼 敎界有志는 이에 크 게 檢討할 것이라 하고 뜻을 뜻는다.

丁丑十二月十二日夜

—(京城明倫寓居에서)—

—(五十二頁으로부터續)—
우선 生活安定을 못하니 가요。凡夫는 避치 못 할 일인지。그러나 그는 佛敎를 아나 佛敎를 버리 지 않겠지요。

賈永眞 가나니 원질이요 좀 널리 생각하여야지요。 司會 何如間 于先宗務當局者들이 좀더 熱을 내어야겠습니다。當局者로서는 評議員會에서 定 한學費만 보내었스면 그만이지 態度 即니 무 機械的으로 執行만 하지 말고서 學生의 動 向에 關心을 가지고 學父兄의 責을 다하도록 되 어야 하지요。그리고 梁尼말삼가치 먼저 朝鮮 佛敎를 研究하여 朝鮮佛敎의 旨을 確立시킨 다음 이 信條下에 자라는 佛徒는 各其素質에 따라 留 學시키는 것이 조출뜻함니다。그러나 當分間은 佛敎科를 專攻시키는 것이 조처안을 가요。 時間도 늦고 하니 이단으로 맞치겠습니다。니 무 오랫동안 手고를 끼쳐 大端未安하게 되었습 니다。 —(文實...記者)—

佛敎의 宗敎的 特異性

張 元 圭

宗敎는 人類의 歷史가 있음으로부터 人間이 생 存하는 곳마다 있었음은 歷史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宗敎에 對한 觀念은 原始人과 現代人과 相 異하며 같은 現代의 高等宗敎者라도 文化의 程度 에 따라 相異하다。即 一般人文 現象의 發展과 같이 宗敎現象도 底級의 宗敎로 불어 高級의 宗敎로 進 化하는 것이다。

一、머리말

그러함으로 宗敎學이 創始하여 宗敎의 定義를 提唱한者만호나 各其 다르다。그러나 一世紀前까 지는 宗敎學者의 提唱한 定義는 大概 基督敎의 神의 觀念을 基礎로 하여 神과 人間과의 關係를 根 本條件으로 하여 定義를 提唱하였다。 그러하여 佛敎가 처음 西洋宗敎學者에게 알

여졌을 때에는 神을 條件으로 한 宗敎의 概念으로는 理解할 수 없습니다。佛敎는 虛無論이요 人生哲學 이라고 하며 宗敎性을 否認하였다。近聞英國이 印 度를 植民地로 한後에 印度의 思想研究에 研究結 果 宗敎의 概念을 神과 人間과의 關係에 두지 않고 聖과 俗이라는 데에 두게 되었다。따라서 佛敎의 禪 定을 研究하여 禪定이 宗敎의 必然의 標準임을 認識 하고 基督敎는 祈禱의 宗敎요 佛敎는 禪定의 宗 敎라고 公認하게 되었다。

그러나 現今佛弟子로서도 宗敎의 意義를 認識 하지 못하고 佛敎를 哲學으로만 解釋하고 實踐躬 行의 宗敎性을 放視하는者 許多하다。또한 佛敎 에 造詣가 깊지 못한 一般社會人은 宗敎는 非科 學이라고 하며 佛敎를 度外視하는 傾向이 적지 않다。 그러함으로 佛敎의 宗敎性과 科學性을 再吟味

하며 闡明하여 一般人에게 周知하는 것이 意義가 있지 않을 가하여 이 論題를 撰擇한 것이다.

一、一般宗教의 形式

佛敎의 宗教의 特異性을 論하자면 一般宗教의 形式과 其本質을 明確히 한다음 佛敎의 宗教形式과 其本質을 比較하여 特異性을 闡明하는 것이 定例일 것이다.

大概 宗教現象의 共通한 形式은 信者와 所信 卽 主體와 客體라고 할 수 있다. 勿論 主體는 人類이다. 그러나 宗教學者間에 動物도 宗教의 主體가 될 수 있으나에 對하여 異說이 있다. 卽 動物도 宗教의 生活를 하느냐 아니하느냐의 問題다.

여기에 對하여 進化論의 立場의 學者는 恐怖 信實 忠實과 같은 人間의 宗教의 性質을 動物도 所有하였는지 動物도 宗教의 主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學說에 反對하여 動物에는 愛 恐怖 등의 感情을 所有하였지만 宗教生活의 必須基礎가 되는 宗教를 完成시킬 수 있는 能力 卽 理性의 推象能力이 없으니 宗教의 主體가 될 수 없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未開劣等의 宗教로부터 今日의 文化의 高等宗教에 이르기까지 宗教進化의 程度를 보면 各其 要求하는 것이 다르다.

未開時代의 庶物崇拜의 宗教에서는 昊天에 祈雨하는 것과 같은 物質要求가 宗教現象이었다. 그러나 人間의 知識이 進步함을 따라 物質的要求로부터 精神的要求로 變하여 온 것이다. 그리하여 罪惡으로부터 救濟를 要求하고 苦로부터 解脫을 要求하여 精神의 慰安을 要望하게 된 것이다. 卽 人間이 自己의 不完全을 意識하여 安全을 要求하는 것이 動機가 되어 宗教現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宗教現象은 人間의 要求로부터 展開되는 것이나 모든 要求가 宗教의 要求가 되는 것이 아니고 特히 日常生活의 經驗으로써는 또한 人間의 力으로서는 滿足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 한 超人間的 存在을 信하여 要求하는 것이 宗教의 要求가 되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客體(佛神)는 何時든지 人間以上의 存在가 안이면 안되며 超人間的 存在는 人間의 要求에 應하여 滿足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못되던 宗教의 信仰心이 나지 않는다.

佛敎經典에도 三惡道에는 佛敎에 依持할 餘地가 없다고 하며 天上界에도 宗教의 修養을 할 수 없다고 하며 釋尊께서도 人間界에 降生하시어 成道하시었다는 說話等도 여기에 根據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人類만이 宗教의 主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原始時代의 發掘品에 動物의 宗教의 生活에 使用한 物品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宗教의 主體는 人類이지만 其宗教의 作用은 肉體의 態度가 아니고 精神의 態度에 屬하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宗教의 表現은 肉體의 動作이나 言語로 表現할 수 있으나 그 根源은 精神의 作用에 依한 것이다. 그러함으로 自然히 意識의 作用으로 對象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니 그 對象이 宗教의 客體(所信)가 되는 것이다.

一、一般宗教의 宗教의 要求 本質

以上과 같이 主體와 客體가 宗教의 一般形式이 되나 이兩者가 宗教의 表現이 되는 動機는 如何한가. 大概 人文現象은 반다시 얻어 할 要求에 依하여 이어나는 것파가치 宗教現象도 宗教의 要求가 動機가 되어서 展開되는 것이다.

그러하여 이兩者의 關係(要求에 應하는 것)는 必然的 關係가 안이면 안된다. 原始宗教에서는 自然現象을 客體로 하여 物質的要求를 하였기에 그 關係는 必然的 關係가 되지 못하고 偶然的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超越者인 神을 信하는 宗教에서는 父와 子의 關係로 推定하여 兩者의 親密한 關係를 感하고 滿足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 關係는 主觀의 感情에 基因될 뿐이지 客觀의 系統의 父子의 關係는 아니다. 信하는 人間만이 天이 父라고 感할 따름이지 人間自體와 神과의 直接關係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함으로 本質的 必然的(科學的) 關係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함으로 西洋의 宗教學者들은 그 關係를 必然的으로 認定하기爲하여 神의 內在性을 主張하게 되었다. 그러나 神의 內在性을 認하니 人神同格이 되어 神의 超越性을 喪失하게 됨으로 其宗教의 根本精神을 忘却하게 되었다. 그것은 人間은 到底히 神이 될 수 없다는 天人懸隔의 宗教인 까닭이다. 그러면 佛敎에서는 이 主體와 客體와의 必然的 關係와 內在性을 如何히 解釋하는가. 이 점이 佛敎의 特異性이 될 것이다.

佛敎의 宗敎의 本質

佛敎의 宗敎의 本質은 一般他宗敎와 共通되는 點이 있으면서도 他宗敎와 다른 特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特徵은 佛敎全體(各派)에 通하여 貫徹된 釋尊의 精神이래야 宗敎의 本質이 될 것이다.

佛敎의 一標語인 捨惡修善이 佛敎의 特徵이 될 것인가. 이것은 佛敎의 通相은 되나 他宗敎도 捨惡修善의 宗敎안임이 있다. 그러함으로 佛敎의 特徵이라 할 수 없다.

古來로부터 佛敎와 外道를 分別하는 三法印이 佛敎의 特徵이 될 것인가. 三法印中 諸行無常이라 는 것은 萬物流轉說인데 이說는 希臘古代哲學에서도 論說하였으니 佛敎의 特有의 點은 아니다. 다 음 寂靜涅槃의說은 印度一般思想(印度哲學)의 佛敎特有의 點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諸法無我는 佛敎特有의 思想이요, 古今을 通하여 一無我說을 提唱한 宗敎도 없고 哲學도 없다.

그러나 一無我說이 他宗敎와 共通되는 點이 있지는 않다. 佛敎의 宗敎의 本質이라 할 수 있다. 前에 宗敎

을 條件으로 한 宗敎形式으로는 그 宗敎形式을 解 釋할 수 없다. 그러함으로 深刻히 究明하지 않으면 無宗敎者와 도갓트나 現實의 不滿을 느끼고 理想을 推求하는 宗敎意識는 極히 熾盛하였었다. 이따 肅은 宗敎心이 當時 既成宗敎에 滿足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既成宗敎를 否認하고 現實에 直面한 苦 勞부터 解脫할 수 있는 眞實한 宗敎를 求하시기를 마지안으셨다.

이러한 宗敎意識狀態에서 修道한 結果 이世上의 諸行은 生滅遷流하는 無常한 것이며 따라서 諸法은 無我인 것을 大悟하시어 我에 執着을 버리시고 無我의 眞理를 體驗하야 涅槃의 佳境에 到達하시었다. 即我에서 無我에 到達하신 것이다. 이와 가치 尊釋의 修行은 確實히 宗敎의 이잇스며 그 內省的 宗敎生活에서 眞實한 宗敎를 構成하시었다.

釋尊의 修行時代에는 宗敎意識에 對한 客體는 그 要求하는 理想인 未知數였었다. 그 實現에 對하여는 既成宗敎에 保證하는 것과 가튼 何等의 保證이 없었다. 그러나 釋尊은 修行의 結果 成道에 依하여 未知數였던 理想을 體驗하야 自己스사로 理想實現의 行을 保證하시었다. 여기에서 釋尊의 宗敎의

의 本質에서 論한 것과 가치 宗敎의 本質은 宗敎의 主體와 客體와의 交涉이 잇서야 한다. 佛敎의 엇더한 宗派라도 他宗敎의 神人對立과 同樣으로 衆生과 佛과 의 相對關係를 가지지 않는 宗派가 없스며 또한 生佛對立이 면서 生佛一體를 論하지 않는 宗派가 없다.

生佛一體라는 것은 無我의 原理에 依하여 一貫의 는 것이다. 即生佛對立은 我와 無我의 對立이요 我가 無我에 到達한 때에 佛과 衆生이 一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佛敎의 特有의 思想이요 宗敎의 本質이 되는 것이며 特異性이다.

一、釋尊의 宗敎의 形式

우에서는 佛敎의 宗敎의 本質은 一般的으로 論하였으나 이것을 釋尊自身에 比하여 具體적으로 論한 同時의 神敎의 解釋하시듯하는 內在性 超越性及 必然의 關係를 論證하고자 한다.

釋尊의 成道하기 前의 宗敎의 生活은 果然 이러한 宗敎의 形式이 具備하였는가 疑問이다. 釋尊은 當時 既成宗敎를 否認하고 自己의 힘으로 自己를 主體로 하야 修行하시잇슴으로 一般神人對立

經歷에 依하여 主體와 客體의 關係를 究明하면 現實의 苦(主體)와 理想의 涅槃(客體)의 對立이라고 볼 수 있다. 即修行時의 釋尊은 現實이요. 成道後의 佛陀는 實現이다. 그러함으로 成道後의 佛陀로부터 修道時를 回顧하면 釋尊은 佛陀를 理想으로 하고 修行하시었다 고 할 수 있다. 釋尊은 現實에서 苦를 느끼고 이 苦에서 解脫하기爲하야 暗々裡에 佛陀라는 理想인 客體를 對象으로 하여 修行한 結果 그 理想을 實現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가치 釋尊의 宗敎의 客體는 他로부터 賦與한 것이 아니고 釋尊에 內在하였던 것이다. 또한 修行時에는 如何한 사상이라도 修行하지 안는 것을 스스로 修行하야 實踐하였슴으로 超越性의 이라고 認定할 수 있다. 即釋尊의 內在의 理想은 超越의 存在이셨다. 故로 釋尊의 宗敎의 對象은 內在性과 超越性을 具備한 客體이셨다.

그러함으로 神을 對象으로 한 他宗敎와 如히 祈禱를 修行德目으로 한 宗敎의 生活이 아니고 禪定을 修行德目으로 한 宗敎의 生活을 하는 것이다.

一、佛陀와 衆生과 의 宗敎의 關係

成道을한佛陀는 理想의體驗者이며 淸淨不變의 法의 人格의現顯인 久遠實相의法身이다。그러함으로 理想을體驗하지 못한 衆生에對하여는 佛陀는 超經驗的存在임으로 自然히 信仰의對象이 되게되었다。따라서 衆生은 佛陀에歸依하여 禮拜할 宗教의情緒가 일어나게되었다。佛陀를 一般神과如히 超越의客體로 推戴하게되었다。即成佛하시佛陀가 未成佛者인 人類에對하여 超越的存在가되어 既成의佛과 當成의佛과의 對立우에 佛敎의 宗教의關係가 展開된것이다。

그러나 佛陀는 先天的으로 佛理想의顯成體가 아니고 人間인 一沙門이 修行에依하여 그內在性의佛을 顯現한것이다。釋尊이 人間으로서 修行에依하여 成佛하시었음은 人間인佛弟子가 釋尊과가치 內在性인 佛性이 있다는 것과 衆生도修行에依하여 成佛할수 있다는 것을 保證할수 있다。그러하여 佛陀께서 成道하시後에 苦海에서 허덕이는衆生을 憐愍히生覺하시어 救濟의願力을세우시고 自己의體驗에依하여 衆生은 本覺(內在性의佛)을所有하였것만은 我에執着하여 本覺을現顯시키지 못하니 我執을버리고 本覺을發輝하라고

러한宗教의生活을하여 理想을實現한것이다。

一、結 論

以上에서 論說한거와가치 諸法無我의原理에即하여 生佛一體를說하는것이 佛敎의根本思想이요人間은 누구나 佛의內在性을 所有하였음으로內在性의顯成體인佛陀를 理想으로하고 禪定이란宗教의生活을하면 必然의으로 成佛할수 있다는것이佛敎의宗教의特異性이다。故로 他宗教와가치 非科學의宗教가아니라 衆生과佛과의關係는 必然的科學의關係임으로 科學의宗教다。

이諸法無我의原理、生佛一體의眞理、宗教生活의修行德目을 論說한것이 有名한四諦法輪 緣起論 實相論 六度 三十七助道品等の 佛敎學說이다。이學說의 人生觀 宇宙觀은 宇宙法則에合理되고體系가明然하이 哲學的理論이豊富하다。그러나佛敎의學說은 無我的體驗을基礎로하여 成立된것임으로 單純히 理念으로 推定하는 理論의一般哲學과는 其性質이 다르다。

現今 佛敎徒로서도 間或 單純히 哲學的으로 解釋하여 佛敎는 哲學이라고 忌憚입시 말하며、佛敎가 처음 西洋에流布되었을때 佛敎는 印度

說破하시었다。

當時의 舍利弗 迦葉等の佛弟子는 釋尊의願力을受持하고 內在性을信하고 佛陀의指導에依하여修行한結果 無我的佳境에 到達하였다。即衆生은 宗教의情緒로부터 現實을反省하고 罪惡을自覺할수록 佛과衆生과의間隔이 멀어짐을늦기여 釋尊을 超越의客體로 推戴하는同時에 理性的理智로佛陀께서 提唱한內在性을信하고 佛陀의修行한過程을、踏襲하여 精進할수록 佛과衆生과는 漸々接近하여 生佛一體의境에 到達한것이다。이와가치 佛陀의在世時에는 釋尊을 理想의對象으로、直接佛陀의圓音에依하여 聞解修證하여 我無我到達하였다。

佛陀가 入寂하신後에는 法印又는法身을 理想의對象으로 宗教의關係를 形成하였다。即三法印法身은 佛陀께서 體驗한內容과 結果를 衆生을爲하여 說敎하신 佛敎의敎理다。이敎理를記錄하여 編輯한것이 佛敎經典이다。佛陀入寂後의 佛弟子等은 佛陀의體驗한內容인 三法印과 理想顯成體인 法身을 理想으로하고 經典을通하여 聞解修證하였다。龍樹無着 達磨等の諸賢은 모다 이

哲學이요 宗教가아니라라고 誤認된것도 禪定이란內面的生活을 土臺로하여 無我를 體驗한眞理를材料로하여 成立된敎理임을 認識하지 못한所以이다。그러함으로 佛敎徒는 單純히 理論的으로 佛敎를研究하여 自任할것이아니라 宗教意識을發動시키여 禪定이란 宗教의生活을하여야 佛敎의眞正한 面目을認識할것이며 따라서 佛敎의進展이잇을것이다。理論的으로 佛敎를研究하여 佛敎의究竟目的을 達成하였다고 自任하고 그生活에아모宗教의反映이없다면 佛敎의價値는업을것이다。眞正히 佛敎를研究하였다면 佛陀의超越性을 欽仰하게되고 佛陀의老婆心切에 感服되어 自然히 佛陀에게 禮拜할情緒가 發動할것이다。이宗教의情緒가 發動됨을 動機로하여 無我的原理原則에即하여 日常生活의 모든事物을解結하고저思惟하고 精進하게될것이다。이思惟精進을 行住坐臥何時나 放念放行하지 않는것이 禪定의生活이다。이思惟精進이熏習되며 有意識無意識間에 無我的行을行하게되는때 비로소 無我的境에到達하는것이다。

—「끝」—

戊寅年(佛紀二九六五)一、三)